

‘음주운전 의심’ 유튜버 피해 달아나던 30대 숨져

새벽시간 갓길 트레일러 들이받아 ‘술 마신 거 아니냐’ 추궁에 도주 유족 “심리적 압박에 사고 발생” “사적 제재는 수사기능 무시 행위”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자신을 추격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주차된 시멘트트레일러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법 권한이 없는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공익이나 사익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30대 중반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3시간만에 숨졌다. 해당 차량은 충돌 여파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A씨는 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씨는 세 명에서 열 명까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차량 추적, 폭주족 단속 방송 등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이날 생중계 영상에는 신호가 걸린 사

이 B씨가 A씨의 차량에 접근해 ‘술 마신 거 아니냐’ 등 대화를 하는 모습과 A씨가 B씨를 알아보고 도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추적하다 놓쳤으며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 측은 음주운전을 한 자체는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적이 없었다면 사망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B씨가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놓친 지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A씨의 사고에 B씨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평소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터라 심야에 벌어진 추격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며 “일반인만 하더라도 어두운 밤 운전, 더군다나 두 대의 차가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상황에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한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경우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정상 주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중죄를 짓기는 했지만, 유튜버의 사적 제재가 없었다면 추격전을 벌일 일도 없었고,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은 물론 사망하지도 않았

을 것이다”며 “A씨가 평소 공황장애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오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B씨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이들을 쫓아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유튜버가 생겨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보고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위에 유튜버의 사적제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버의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해 심의를 예고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접속차단을 의결해도 유튜브에 요청하는 방식이라 강제성이 없다. 유튜브는 그간 방심위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 판결이나 자체 규정 위반일 경우에만 조치하는 자율규제 원칙으로 운영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는 사법·행정 공권력과 정당한 수사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들은 범죄 예방 효과를 주장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 만드는 영상 콘텐츠가 대부분으로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수적인 문제 발생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aeong@jnilbo.com



30대 중반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지난 22일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발생한 화재로 전소했다. 독자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 협박해 강도행각... 20대 3명 실형

외국인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 불법체류나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오토바이를 빼앗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상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각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공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을 멈춰 세운 뒤, 금품을 빼앗으려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해 오토바이는 빼앗아 팔거나,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입은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게임 중 시비붙은 지인 폭행치사 20대 ‘긴급체포’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이른바 ‘현피’ 과정에서 상대방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A(26)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께 북구 두암동의 20대 중반 B씨 자택에서 B씨의 전신을 흉기 등으로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 C씨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평소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던 이들은 B씨가 A씨의 캐릭터를 자주 죽게 만든다는 이유로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하는 온라인게임은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착용 중인 아이템을 유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게임을 잘하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고, 채팅방에서 아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내 C씨와 함께 C씨의 본가인 광주를 찾았고 범행 당일에도 B씨와 온라인 게임을

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폭행 후 약 7시간이 지난 뒤 B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후 B씨가 쓰러져있자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구급대의 경찰 공조요청에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